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20.(금) 08:00 배포 2026. 11. 20.(금) 08:00

옥스퍼드대에 '케이-컬처' 연구 거점 마련, 세계와 함께 본격적으로 '케이-컬처' 미래 연구

- 11. 19. 옥스퍼드대 한국학센터 개소 계기로 문체부와 옥스퍼드대 한국학 및 한국문화 분야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케이-컬처'의 세계적 확산과 영향력에 관한 공동연구, 국제 학술교류, 차세대 연구자 양성 등 협력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1월 19일(영국 현지 시각),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이하 옥스퍼드대) 한국학센터 개소를 계기로 옥스퍼드대와 한국학 및 한국문화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옥스퍼드대 한국학센터 독립 개소, 한국의 언어와 역사·문학·정치·경제·문화 아우르는 연구와 강연 중심지로 육성

최근 음악과 드라마, 영화 등의 콘텐츠를 넘어 음식(푸드)·미용(뷰티)·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케이-컬처'의 세계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케이-컬처'의 확산과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케이-컬처'가 세계인의 일상에 자리 잡은 만큼, 해외의 시각에서 그 성공 요인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연구 성과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적인 연구대학인 옥스퍼드대에 한국학센터가 독립적으로 개소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옥스퍼드대는 기존에 일본학과 중국학 중심의 아시아 지역 연구 체계에서, '케이-컬처'와 한국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학센터를 별도 연구센터로 신설하기로 올해 3월에 결정했다. 옥스퍼드대는 '케이-컬처' 관련 정규 강좌를 신설하는 등 한국문화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학센터를 한국의 언어와 역사·문학·정치·경제·문화를 아우르는 관련 연구와 강연의 중심지로 육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동연구, 국제 학술교류, 연구자 양성 등 다양한 국제 연구 협력 기반 확대해 '케이-컬처'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옥스퍼드대 한국학센터를 주요 거점으로 삼고 한국학과 한국문화, 문화창조산업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세계 각국의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케이-컬처'의 현황과 미래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국제 포럼과 세미나, 연수회, 한국문화 관련 행사와 연계한 강연, 전문가 대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한 예술인, 문화·창조산업 관계자, 정책 담당자 등의 교류를 확대하고, 차세대 연구자의 연구 활동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문체부는 이번 협약이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를 학문적 성과로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케이-컬처'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케이-컬처'의 해외 진출과 확산이라는 가시적 성과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이에 더해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과 함께 '케이-컬처'의 성장 배경과 국제적 경쟁력, 미래 과제 등을 다각적으로 조망하고 연구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국제적 담론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해외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은 물론, 문화예술·산업 분야의 다양한 기관으로 협력의 외연을 확장해 각 기관의 전문성과 특성을 살린 연구 교류망을 구축하고 사업화 및 성장 지원 프로그램, 문화 행사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케이-컬처'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문화를 넘어 세계가 함께 연구하고 그 가치를 논의하는 문화로 발전하고 있다. 옥스퍼드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케이—컬처'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 성과를 세계와 공유하며, '케이-컬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문화미디어산업실 한류지원협력과	책임자	과장	김현목 (044-203-3331)
		담당자	사무관	김수진 (044-203-333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자유이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